

북콘서트, 평화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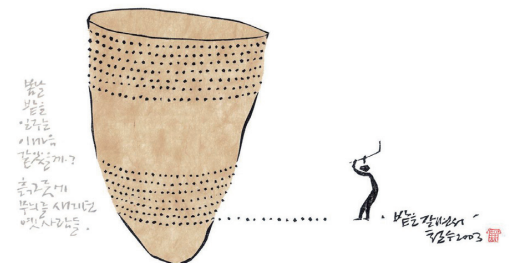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73동 문화관 2층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 +82 (0)2-880-4052~4 F +82 (0)2-874-7305
E tongil@snu.ac.kr <http://tongil.snu.ac.kr>



북콘서트, 평화의 책



〈평화의 책〉 선정패(판화 : 이철수 화백)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후

PAJU BOOKSOCIETY
조직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인류의 보편 가치인 평화와 연결 지은 연구프로젝트 '평화인문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더 많은 이들이 평화를 느끼고 상상하며 나누기 위한 <북콘서트, 평화의 책>을 엽니다.

곽은경의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남해의 봄날, 2013)가 그 첫 번째 책입니다. 지구촌의 차가운 아픔을 치열한 정신으로 담아낸 따뜻한 책입니다. 이 책

의 감성을 널리 알리고자 저자, 패널, 독자가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저자가 평화와 갈등의 현장을 대화로 전해주고, 공동저자인 백창화(공동저자)와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인 이성훈의 증언, 한국 사회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수 이지상의 노래가 더 붙어 울려 퍼집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공감의 더해진다면 그 자체로 울림이 있는 평화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평화적 감성을 나누기 위한 <북콘서트, 평화의 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박명규

◎ <평화의 책>에 대하여

2014년부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매년 <평화의 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저술된 책 중에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최상의 책을 뽑아 우리 사회에 평화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책>을 중심으로 한 북콘서트는 책의 평화적 감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과 함께 나누기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는 국내 평화 관련 학자들이 추천한 17권의 책 가운데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제NGO활동가인 곽은경의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남해의 봄날, 2013)를 첫 번째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갈등과 아픔의 현장을 치열한 평화의 마음과 따뜻한 문장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앞으로 평화의 책이 더 많이 출판되고, 평화의 감성이 독자에게 스며들어 사회 전체가 한 걸음 더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평화의 책> 선정위원회(가나다순)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 /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김언호 (한길사 대표)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 /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 /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임홍배 (서울대 독문과 교수)

프로그램

사회 :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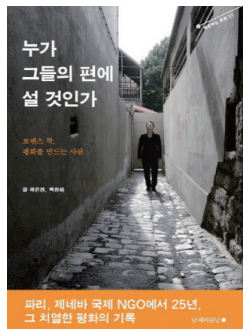
- 14:00-14:20 **평화의 책을 펼치며**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14:20-15:00 **평화의 책 이야기** 곽은경 (저자, 팍스로마나 제네바 유엔 대표)
- 15:00-15:40 **평화, 특!** 곽은경, 백창화 (공동저자),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15:40-16:10 **노래, 특특!** 이지상 (가수, 성공회대 외래교수)
- 16:10-16:50 **청중과 함께, 특특특!** 독자와의 대화
- 16:50-17:00 **평화의 책을 덮으며** 이찬수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곽은경, 백창화 (공동저자)

◎ 2014년 <평화의 책>: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 곽은경 · 백창화 (남해의 봄날, 2013)

국제 NGO 팍스로마나 제네바 유엔 대표인 곽은경이 국제 연대 활동가로 살아온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지구촌의 슬픈 이야기들을 치열한 평화의 마음과 따뜻한 문장으로 현장감 있게 기록해낸 책입니다. 파리와 제네바, 인도와 아프리카를 넘나들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사는 이들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저자의 행보와 국제 NGO 활동가들의 삶이 잘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온 지구촌 슬픈 역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 애잔한 평화적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PUS)

북콘서트, 평화의 책